

희미한 첫사랑의 흔적을 찾아서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레터>

김경욱 | 소설가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는 애뜻한 첫사랑의 비밀을 담고 있다. 그 첫사랑의 싹이 돋아난 곳은 학교 도서관. 남자는 구애의 방법으로 여자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도서관에 반납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이 고전적인 방법은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와이 순지는 <러브레터>를 통해 첫사랑이란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첫사랑은 왜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가. 이와이 순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를 봤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사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첫사랑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첫사랑은 첫사랑이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 동어반복처럼 보이는 이 진술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 영화 <러브레터>는 이 비밀에 관한 애뜻한 사진첩이다.

이즈키 VS 히로코

등산 도중 발생한 조난사고로 애인을 잃은 히로코. 그녀는 우연히 죽은 애인 이즈키의 중학교 앨범을 보게 되고 앨범에 적힌 옛날 주소로 편지를 띄운다. 놀랍게도 답장이 오고 히로코는 그 편지가 천국에서 온 것이라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지를 방문한 히로코는 또 다른 이즈키가 그곳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죽은 이즈키의 중학교 동급생이었던 여학생, 또 한명의 이즈키. 히로코의 편지는 그녀에게 배달됐던 것이다.

이즈키 VS 이츠키

이즈키가 이츠키에 대해서 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남은 이츠키가 죽은, 아니 잊고 지내던 기억 속의 또 다른 이츠키와 공유했던 추억을 회상한다. 영화 <러브레터>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같은 반에 두명의 이츠키가 있다. 한명은 무뚝뚝하고 다소 엉뚱한 남학생. 다른 한명은 말이 없고 새침데기인 여학생. 동급생의 장난으로 동시에 도서부장이 된 두명의 이츠키. 엉뚱하고 무뚝뚝한 이츠키는 다른 학생들이 전혀 대충하지 않는 책들만 골라 독서카드에 후지이 이츠키라는 이름을 기입하기 시작한다. 어려운 철학책이나 오래된 시집들, 버려진, 그래서 타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책들에 후지이 이츠키라는 이름의 서툰 러브레터를 새기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새침데기 이츠키는 부친을 잃고 한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날 무뚝뚝한 이츠키가 찾아온다. 무뚝뚝한 이츠키는 새침데기 이츠키에게 대신 반납해달라며 한편의 책을 맡긴다. 며칠 후 새침데기 이츠키는 학교에 나가게 되고 무뚝뚝한 이츠키가 전학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독서카드에 후지이 이츠키라는 그들의 이름만 남긴 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첫사랑은 그것이 첫사랑이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사랑이란 언제나 사후적인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맞아 그것이 바로 첫사랑



첫사랑은 그것이 첫사랑이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사랑이란 언제나 사후적인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맞아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었어'라는 중얼거림이 아무에게도 낯설지 않다면 첫사랑이란 도서관에 유폐된, 그래서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책과 같다. 사진은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

이었어, 라는 중얼거림이 아무에게도 낯설지 않다면 첫사랑이란 도서관에 유폐된, 그래서 아무도 들춰보거나 하지 않는 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다. 제목은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이즈키라는 이름이 적힌 독서카드가 끼워져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다른 누구도 심지어 당사자인 두명의 이츠키조차 읽지 않았던 책, 첫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독서카드 뒷면에 자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십여년이 흐른 뒤에 발견하는 것,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첫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이즈키라는 이름이 적힌 이래로 십년이 넘게 흘러도 그 누구의 이름도 적히지 않은 독서카드, 누구에게나 늘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타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주다 어느 순간 말꼬리를 흐리며 침묵하는 것, 첫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